가정상담

6

2019

• 통권 430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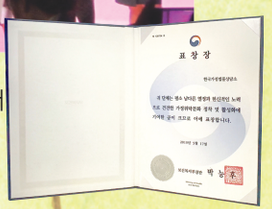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상담소는 지난 5월 17일 중앙가정위탁센터가 개최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공로로 가정위탁유공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관련기사 31면)

△ 본소 곽배희 소장은 5월 27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학술포럼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관련기사 33면)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매발톱꽃〉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친생추정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 상담소 의견서
14 • 가정폭력상담실
18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⓮
20 • 교육부
24 • 인터넷 상담
25 • 좋은 책
사피엔스
26 • 결혼과 인생(196) 만화일기
미성년 _ 김용언
28 • 임상실습소감문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9. 6.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이 달의 메시지

현실에 기초한 올바른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서있는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의 작은 방은 우리 사회 그 어느 곳보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상담소 역사 63년을 통해 그리고 제가 직접 상담창구를 통해 보아온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급변해 왔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복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를 통해 절벽에 다가선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실현하면서 충만한 삶을 꿈꾸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인 10명 중 9명은 외국인과 결혼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비혼동거에 대해서도 3명 중 2명이 수용가능하다고 대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응답자의 89.2%(남성 90.9%, 여성 87.5%)가 수용 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높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5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은 수용도를 보였고, 구체적으로 20대~40대가 95.3%, 50대~70대의 80.1%가 수용 가능하다고 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도 응답자의 86.7%(여성 87.9%, 남성 85.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20대~40대의 90% 이상이, 50대~70대의 75%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비혼독신이나 비혼동거 또한 다양한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양 · 한부모 · 재혼 ·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연히 사라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고무적인 상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 한 편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로 고심하던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과 관련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와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관념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동반자살' 등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 의 경우 살인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지만, 반대의 경우인 '비속살인' 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족은 지금 전근대와 현대, 진보적인 사고와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보수적 사고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설문이나 여론조사에서는 마치 시험문제의 정답을 제출하듯 올바르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만 현실에서 문제에 맞닥뜨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모순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기에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충분하게 듣고 함께 논의하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 연구를 거듭하고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애쓰는 점은 당연하고 또 다행스럽지만 그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우리 국민에 맞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기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사회상의 변화에 기인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이를 널리 수용하려는 것은 21세기 화두인 성평등을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일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회구성원 전반의 의식 개혁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실에 기반하여 실천을 담보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근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의견서

– 대법원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본소는 5월 22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다루어진 2016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에 관하여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종래 대법원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동거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공개변론에서는 객관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해 다루었다.

I. 들어가는 말

1983년 '동서의 결여'를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1]이 나오기 전 까지 민법 제844조에 규정된 친생추정 원칙은 1958. 2. 22. 민법이 제정된 이래 부자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확고한 기준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친생추정은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2]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상 부(父)와 실제의 부(父)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의 범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3] 그리고 이에 따라 2017년 동조 제2항이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제3항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개정[4]되었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2)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제기한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부자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2년의 제척기간 등으로 인해 친자관계를 번복하는데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3) 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4)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 (시행 2018. 2. 1.)

고,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가 신설되었다.[5]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父)와 실제의 부(父)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담현장에서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기간 중에 법률상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 이들은 친생부인 재판 과정의 어려움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자녀의 출생일이나 부모를 허위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녀의 고통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자녀복리나 인권보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판례를 통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II. 상담사례를 통해 본 친생추정 조항과 관련한 법적 · 현실적 문제점

본 상담소의 친자관계(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 인지 등) 관련 상담은 1970년대 793건이었던 것에서 2010년대(2010년부터 2017년까지) 5,210건으로 약 40년 사이에 6.6배나 증가하였다.[6]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실제의 부(父)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혼인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가 많아졌다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상담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법률상 부와 실제의 부가 다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상담이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한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은 사회변화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고 엄격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거나 출생신고를 미루는 사례들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래에서는 민법 제84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담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례 1 - A(남성, 23세)

사례 1 - A(남성, 23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음. 어머니와 아버지는 1991년 결혼 후 1993년 A를 출산 함. 이후 아버지의 잦은 가출로 어머니 혼자서 A를 양육해 왔고, 모친이 사망한 후 국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음. 구청에서 부양능력확인 조사를 위해 아버지에게 연락하였으나 아

5) 이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견해는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제42집 제1호, 168면 참조.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제문제 Ⅲ』(2017), 『2017년도 상담통계집』참조

연대별 친생부인 · 친생자관계존부 · 인지 등 친자관계관련 상담 통계

구 분	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09)	2010년대 (2010-2017)
친자관계상담(건)	793	2,590	1,312	1,083	5,210
가 사 상 담 (건)	41,195	101,599	76,824	77,918	116,815
백 분 율 (%)	1.92	2.55	1.71	1.39	4.46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버지는 A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함. 이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버지와 A가 부자관계가 아님이 확인이 되어 구청에서는 아버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아버지는 연락을 두절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A는 생계지원이 중단될 어려움에 처함.

사례 2- B(남성, 33세)

사례 2- B(남성, 33세)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 출산 후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여성은 출산 직후 아이를 B에게 남겨두고 잠적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B가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양육함. 얼마 후 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자신이 유부녀라고 하면서 이혼할 테니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함. 그러나 아이 엄마는 그 후 다시 가출하였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이 엄마에게 요구하였으나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음.

사례 3- C(남성, 39세)

사례 3- C(남성, 39세)는 교제 하던 여성이 임신을 하자 동거를 하며 아들을 낳음. 이후 아이 엄마가 유부녀이고,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아이의 부가 아이엄마의 법률상 남편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됨. 불화가 잦아 아이 엄마는 가출하였고 얼마 후 아이 엄마가 C에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음. 그러나 C는 자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현실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이 엄마는 부자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음.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등록부상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동서결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법률상 부와 자의 관계를 번복할 수 있는데, 법률상 부는 물론 모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어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길이 법률상 막혀 있는 것이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부는 사실과는 다른 '동서결여'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자녀의 모(母)를 모르는 것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생신고를 위한 친자 확인'을 받아 모를 밝히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후자의 방법처럼 '모(母)'를 모르는 것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친자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 되며, 혹여 훗날 생부가 '모(母)'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라든가 또는 '모(母)'가 생부에서 '모(母)'로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법률상 모자 관계가 확인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녀의 안정적 양육이 어려워진다.

위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 배우자 혹은 혼인 중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법정에서 원하지 않는 사생활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며, 특히 제척기간을 도과 한 경우에는 이혼을 했더라도 법률상 부가 자녀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양육, 부양, 상속 등)이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또한 친생추정 번복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혈연진실에 부합한 친자관계를 원하는 법률상 부, 모, 자녀, 그리고 생부의 의사나 이들의 복리를 도외시하고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는 개정되어야 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판례상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III.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와 한계

종전에 많은 법제들에서는 법적 부모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mater semper certa est(어머니가 누구인지 언제나 확실하다)와 paster est quem nuptie demontrant(아버지는 혼인이 지시하는 사람이다)의 두 가지 핵심 원칙들을 비교적 다툼 없이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편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법적 부모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민법도 제844조에서 친생추정조항을 두고 이 조항에 따라 객관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부(父)를 결정하였다. 이는 '포태와 출산'이란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모자관계는 명확히 결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아, 법률상 부자관계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함이었다.

친생추정제도는 부부가 동거생활을 하면 아내가 부(夫)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 부부 상호간의 정조의무가 지켜지는 한 아내가 부(夫) 아닌 다른 남자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다는 점, 부(夫)의 친생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子)의 법적 지위를 미확정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와 자(子)의 복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자(子)와 혈연관계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근거를 두었다.[7] 이렇게 볼 때 친생추정제도는 입증곤란의 구제와 가정의 평화 유지, 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생과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녀의 출생 시 자녀보호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그 존재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학적 검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혈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됨에 따라 종래 입증곤란의 구제라는 입법목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고, 가정의 평화 유지는 적어도 혼인관계 종료 시에는 유의미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친생추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는데, 혼인관계 파탄 후 이혼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관계 해소 후 300일 이내에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적인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불확실한 개연성에 기반을 둔 기존의 친생추정 제도가 오늘날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 친생추정에 대한 제한 법리의 발전

친생추정법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학설에서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이론들이 주장되었다. 이를 보면, ① 외관설 : 장기간의 별거 · 생사불명상태의 지속과 같이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② 혈연설 : 부(夫)의 생식불능이나 혈액형 배치와 같이 객관적 ·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언제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③ 가정평화설 : 부부가 이미 이혼한 경우와 같이 지켜야 할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④ 사회적 친자관계설 : 유전자 배치와 같이 부(父)와 자(子)간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7) 이은정, "가족제도의 변화와 친자법 개정의 필요성", 법학논고 3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384면 참조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사회적 친자관계도 소멸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 판례[8]는 외관설을 택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부부 사이의 동서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9], '포태 기간에 동서의 결여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또는 해소되었고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자(子)와 모(母)의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1[0]들이 나왔다.

이러한 판례 변화의 움직임은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도 중요하지만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하는 당사자의 의사 역시 중요시해야 한다는 관점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정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동서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례의 적용범위를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11]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자관계의 확인이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나 법적인 장애로 인해 부자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혼인과 이혼, 혼외관계에 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로 인해 혼인 중 혹은 혼인 해소 후 일정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가 법률상 남편(혹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도 커졌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가족법의 주요 관심사가 아동의 복리라는 점이다. 엄격한 법과 관행으로 재단할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거나 자녀가 자신의 생부와 법률상 단절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아동복리 관점에서 조정하고 제거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원과 입법가의 책무가 될 것이다. 넷째, 친생추정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법률상 부나 생부, 친모,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남편(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에도 우선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점, 그 과정에서 탈법이나 불법적인 관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점, 진실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인 친자관계를 성립하도록 하는 점, 법의 장벽으로 자신의 자녀와의 관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어른들의 잘못으로 자신의 부모가 다르게 기재되거나 출생신고조차 안되는 점 등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양심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판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9) 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

10) 대전가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드단55628 판결

11) 이와 관련하여 친생추정의 예외를 넓게 인정한다면, 상속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자산가인 생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가 법률상 부와의 친생 추정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리고 부양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육의무를 성실히 한 법률상 부와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일면식도 없는 생부가 부양의무를 강요하기 위하여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친생추정의 예외를 혈연진실에 입각하여 확장한다면, 법률상 부와 실제의 부가 일치하지 않는 자녀는 현재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하여도, 언제든 제3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친생추정이 배제될 수 있게 되어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의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둔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와 같이 지켜야할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부와 친모, 생부와 자녀 모두에게 벗어나기 힘든 고통의 족쇄가 될 뿐이다. 따라서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하여 부자관계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실질적으로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의 부(父)를 생물학적 부(父)로 정할 것인지, 법률상 부(父)로 정할 지의 문제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 관계의 진실을 밝히는 점에 있어서 혈연설이 설득력이 있으며(이 설에 따를 경우 친생추정의 틀은 깨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구제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거나 가정의 평화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정도로 성숙했다고 보며, 오히려 법이 사회적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IV. 인공수정과 친생추정의 문제점

혼인 중인 부부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AID(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방식의 인공수정을 할 경우 "아내가 혼인 중 포태한 子가 부(夫)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子와 법률상 父 사이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혈연설을 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계획한 의뢰부와의 사이에서 친생추정이 번복되는 결과 정자기증자나 자녀의 의사에 따라 유전적 부(父)가 친부의 지위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민법 제852조에 따른 친생자 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인공수정을 의뢰한 부는 다시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확정되는 결과 제3자에 의한 인지도 불가능해지므로, 자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 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다시 피고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12]는 것이 우리 하급심 판례의 태도이다. 현재 인공수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입법적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판례들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는 제844조의 규정에 의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AID인공수정을 이용해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그 기준의 우선순위는 '자녀의 복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夫)의 동의를 얻은 AID에 의해 출생한 자의 경우는 친생추정을 받게 하고 부(夫)에 의한 친생부인도 부정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그 외 서울가정법원 1983. 7. 15. 선고 82드5110(본소) · 83드1266(반소) 판결, 서울가정법원 1983. 7. 15. 선고 82드513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6. 9.선고 86르53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0. 8. 18. 선고 2000드단7960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등.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생추정규정에 의한 법률상 친자관계와 혈연에 의한 실제 친자관계가 다름에서 오는 현실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지연 내지는 양육의 포기, 허위의 출생신고 등 불법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이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함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인정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은 때로는 자녀를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친생추정'은 그 말 그대로 '추정'이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자녀의 복리에 맞게 열어 두는 것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추정번복으로 구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확립과 친생추정으로 보장될 수 있는 자녀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 형량 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간이하고 신속, 정확한 혈연(친생자)관계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실과 상이한 신분관계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오히려 가족 간 불화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출생신고 기피나 수리 거부로 인해 국가의 보호나 관리에서 누락되는 무등록자의 발생은 자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와 같이 지켜야할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부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자녀의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의 예외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夫)의 동의를 얻은 AID에 의해 출생한 子의 경우에는 부(夫)가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夫)의 동의를 얻은 AID에 의해 출생한 자의 경우는
친생추정을 받게 하고
부(夫)에 의한 친생부인도 부정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와 같이
지켜야할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부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자녀의 보호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의 예외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부(夫)의 동의를 얻은 AID에 의해 출생한 子의 경우에는
부(夫)가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1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첨 부

상 • 담 • 사 • 례 [13)]

민법 제844조 제3항의 추정을 받는 경우

사례 1 – (여성, 36세) 1997년 혼인하여 고부 갈등으로 인해 2001년 경 집을 나옴. 15년의 장기별거를 사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1월에 이혼함. 2015년부터 D와 교제를 하였고, 이혼 후 2017년 1월 D와 혼인신고 하여 그해 7월에 아들(1세)을 출산함. 아들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음.

사례 2 – (여성, 34세) 전남편과 2005년 혼인하고 2015년 8월에 협의이혼 함. 그리고 2015년 12월 E와의 사이에서 딸(1세)을 출산하고 혼인신고 함. 딸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음.

사례 3 – (여성, 56세) 전남편과 1983년 혼인하고 2002년 12월 협의이혼 함. 2003년 5월 F와의 사이에서 아들(14세)를 출산함. 모(母) 성명 미상으로 하여 F의 친자로 아들의 출생신고를 함.

사례 4 – (여성, 31세) 전남편과 2013년 1월 혼인하고 2013년 10월 협의이혼 함. G와 사이에서 2013년 12월 아들(4세)을 출산함.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니 전남편이 아들의 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됨.

사례 5 – (여성, 38세) 탈북하여 H와 동거하면서 북한에 있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 4개월 후 H와의 사이에서 아이(2세)를 출산함.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음.

사례 6 – (여성, 45세) 조선족으로 중국인 전남편과 혼인신고 직후 한국에 일하러 와 별거하다가 2011. 10. 이혼을 하였음. 2012. 2.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2. 6. 자녀를 출산함. 자녀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음.

사례 7 – (여성, 38세) 2006. 12.에 전남편과 이혼하고 2007. 3.에 재혼한 I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함. 출생신고는 모를 밝히지 않고 I의 친자로만 출생신고 함.

사례 8 – (여성, 35세) 협의이혼 직후 교제 중이던 J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원래 예정일 보다 4개월이나 앞서 조산을 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니 전남편의 친자로 등재됨.

사례 9 – (여성, 35세) 2009. 12. 인도인인 전남편이 혼인신고 직후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았음. 결국 전남편과 2011. 10. 재판을 통해 이혼하고 같은 달 K와 혼인신고를 함. K와의 사이에서 2012. 2.에 자녀를 출산함. 출생신고가 어려워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함.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움.

사례10 – (여성, 40세) 전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오랜 별거 후 1996년 이혼함. L과 동거하며 이혼 후 그해 아이(13세)를 낳았지만, 친생추정 때문에 1998년에 자녀를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니, 실제 나이보다 적게 되어 있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이를 본래대로 고쳐달라고 함.

13) 이하 상담사례는 본 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및 소송구조신청 사례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겠으나, 친생추정을 둘러싼 우리사회 현실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첨부한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1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자신의 행동이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간을 가져

사건번호 2017버1** 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9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2회, 부부캠프 2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6. 14. ~ 2018. 6. 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1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21세, 17세)이 있다. 행위자의 폭언과 의심, 물건 저장 강박증 등으로 힘들어진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물건과 자신 중 택일을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위자가 집을 나와 혼자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는 함께 학원을 운영하여 매일 학원에서 대면하며 지냈다. 본 사건은 학원버스 운행문제로 다투다 화가 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다며 폭언하고 협박한 것으로 행위자는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는 사건 이후 화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면서 함께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바라는 바로 1. 물건 정리, 2. 비난 · 욕설하지 않기, 3. 피해자의 자유로운 대인관계 용인하기 등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욕구는 그러했다. 행위자는 상담기간 중 물건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였고, 비난 · 욕설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의 대화 시도를 받아들이는 등 소통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법원의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고 있어 보호처분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조사관에게 강력하게 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행위자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6개월간 보호처분이 연장되었다. 보호처분 변경 후에도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다만, 부부는 학원 운영 때문에 오전 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하여 개별상담과 부부상담 만을 진행하였다.

부부갈등의 한 요인이었던 행위자 부모 제사와 차례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위자와 형이 주관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형편 되는 대로 같이 준비하기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행위자의 물건 저장 습관은 큰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 상담 중 과제를 부과하고 점검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준에는 미흡하였다. 피해자는 친정식구나 친구를 만날 때 행위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면 다투거나 학원 운영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하거나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면서 행위자가 변화되지 않았음을 아쉬워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적어도 작은 아들의 대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15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학 입학 때까지는 지금의 상태-주간에는 학원에서 협업하고 야간에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지내는 방식-로 지내기를 원하여 상당기간 부부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믿음과 존중, 부부간 거리 유지 등을 강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8회, 부부 집단상담 8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2. 5. ~ 2018. 6. 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2녀(14세, 16세, 5세)가 있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결혼 이주해왔다. 부부는 연령차이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가 과거 중국에서 사귀던 남자를 우연히 만나 일정기간 교제한 사실이 밝혀져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있던 행위자는 2017년 8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상담을 받으라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는 화해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상담에 임하였다. 초상담을 통하여 서로의 불만사항과 바람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행위자가 술을 마시면 폭언하고 처가식구에게 냉담하며 흉을 보는 것이 불만이었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아이들을 잘 챙기지 않는 것, 화를 내며 말하는 것, 시가식구들과 잘 지내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다행히 부부의 혼인유지의사가 강하였고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강점이었다. 이에 상담초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 실천 과제 부과 및 이행 점검 등을 중점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중기 이후 부부상담과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부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는데, 부부집단상담을 통하여 행위자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을성이 늘었고 집이 조용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리를 덜 지르게 되었고 잔소리도 줄었으며 결과적으로 행위자가 술을 적게 마시는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예전에는 시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등 지나치게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기분이 좋고, 좋은 말만 하게 되어 매우 좋다고 했다. 행위자도 예전에는 명절 때 피해자가 짜증을 내곤 했는데, 상담 중 맞이한 설에는 짜증을 안내서 좋았고, 별 탈 없이 명절을 보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동안 행위자에게 모든 화를 풀었는데 마음을 바꾸고 편하게 행동하자 모두가 예뻐 보이고 화도 안 나는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행위자가 마음을 열고, 친정어머니와 언니에게도 잘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부부집단상담 종결 시 피해자는 이전에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원망만 했지만 자신의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행위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행위자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기 위해 적금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겠다고 하였다.

종결상담에서 피해자는 행위자가 전과 달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일찍 귀가하여 자녀들을 돌보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이하, 현재는 6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존중해주려고 노력하였으며,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이하, 현재는 6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부부 모두 향후 노력을 다짐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1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사건번호 2017버5**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5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2. 4. ~ 2018. 6. 1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5세, 4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7년 2월 사건당일, 자신이 전날 술을 먹고 외박을 하여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잡고 약 2미터 가량 잡아끌어 현관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상담소를 찾지 않다가 본소의 연락을 받고서야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단지 아내를 잡아끌어 현관문으로 밀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간을 가졌다.

행위자는 대출상담사이고, 피해자는 전업주부였는데 2017년 11월 말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관련 직종에서 전일로 일 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행위자는 초상담 시 상담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겠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 하는 등 매우 우울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보이지 않았으나, 2회 상담 시부터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상담자는 행위자의 말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면 왜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불만을 가지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도록 제시하였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을 1일 1회 실천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였다.

피해자는 상담자의 연락을 받고 바로 본소를 방문하였는데 현재 불행하다는 생각과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고민이라고 하면서 이번 상담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행위자는 초상담일부터 6개월 되는 날에 상담을 종결하기로 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기간 연장 의견을 제시하여 6개월간 보호처분 기간이 연장되었다. 행위자는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에 의하면 상담기간 중 싸우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별로 하지 않고 지내서 행위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점수였는데 현재는 3~4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행위자가 처음으로 아이들과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향후 과제로 부부간 대화를 꼽았다. 행위자는 이전의 부부관계를 0점, 지금의 부부관계를 4~5점으로 평가하였고, 일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모자라는 점으로는 피해자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큰소리를 내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편함과 양가 부모를 서로 만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향후 부부관계에 대하여는 이러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need를 전하고 향후 노력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7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4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7.12.13. ~ 2018. 6.20.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6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1녀(23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7년 9월 사건당일, 피해자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17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의 친정어머니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은 2~3회이며 법적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갈등원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고 피해자의 과거사를 거론하며 공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아들이면서도 부모 제사를 20년간 모셨으며 5년 전부터는 집에서 제사를 모시지 않고 행위자와 형이 번갈아 벌초하고 성묘를 하면서 부부갈등이 심각해지는 등 양가와의 문제가 복잡하였고 부부가 각방에서 지낸지도 오래되었다. 행위자는 상담목표를 '나를 알고 싶고, 나와 아내의 부부생활에 대하여 이해하고 싶다' 로 정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고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집에 가서 지냈다. 피해자도 별거에 동의하였는데 부부 모두 별거기간을 6개월 정도로 생각하였다. 상담이 중기에 접어들 무렵, 딸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피해자는 혼자 지내는 행위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제안하였고,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초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마이너스였다면 상담종결 시에는 6~7점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행위자의 음주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음주가 삶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향후 절주를 하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종결 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8~9점으로 평가하였고 그동안 자신이 잘하지 못하였던 만큼 더 노력하며 딸과도 영상통화를 자주 하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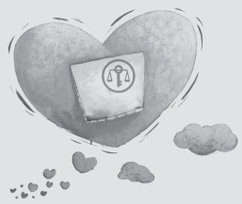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고맙습니다

2019년 5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소이, 박소영, 박수열, 안서연, 오현희, 윤원섭, 이현정, 이혜민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연두, 김윤미,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경은, 고원지, 권지호, 김경민(1), 김경민(2), 김동은, 김소희, 김송희, 김수연, 김지우, 김채린, 김하영, 김혜원, 김효린, 남윤종, 노규림, 문채현, 박범근, 박지원, 박채늬, 반민지, 배상준, 백지연, 손준호, 신수민, 신유리, 엄수인, 엄윤서, 오정훈, 윤도경, 이다경, 이수정, 이승철, 이우현, 이원정, 이은현, 이현지, 임희진, 정윤정, 정혜임, 조태현, 진수연, 최유진, 최희원, 황인경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조성선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조성선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1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⑭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의 평화를 위한 예방사업 무료결혼식 (3)

1977년 10월 무료결혼식 시작

상담소의 무료결혼식은 다양한 방면에서 자원봉사를 이끌어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상담소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이 뜻깊은 결혼식을 주관할 주례를 섭외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정일형 박사가 다른 결혼식의 주례를 거절하면서까지 상담소 무료결혼식의 주례를 전담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워지면서 1979년 4월부터는 상담소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던 김영운 목사가 그해 말까지 전담을 해주었다. 하지만 연말부터 무료결혼식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두 사람에게 주례를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던 차에 1980년 1월, 당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에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던 미국인 타이즈 목사와 장병호 목사가 상담소와 외국과의 영문 서신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아 감리교 목사들의 모임에서 주례 희망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부터 장 목사는 목사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무료결혼식의 예정일에 틈이 나는 목사들을 월별 또는 주별로 배정하여 상담소에 연락을 해 주었고 상담소는 시간을 내주겠는 목사에게 확인 겸 정식으로 부탁하는 전화를 하는, 말하자면 주례 자원봉사단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상담소의 무료결혼식에서는 주례를 비롯하여 준비 과정 전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눈부신 활약을 보여 주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었다. 식장에서는 신랑 신부의 대부분이 결혼식에 몸 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회원들이 예복, 기념품, 사진촬영, 머리 손질과 화장 등 신부의 단장은 물론이고 피아노 반주와 축가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도와준 것은 '이싹회' 였다. 이싹회는 이화여대부속유치원 자모회로 이들은 매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새벽같이 꽃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화로 신부 부케, 신랑 꽃뿐만 아니라 식장 장식을 도맡아 해 주었다. 그 밖에도 웨딩드레스를 수 십 벌 모아 기증해 주는 등 무료결혼식을 위한 이들의 노력과 정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이 밖에도 태평양화장품은 신부화장을, 전순영 회원은 신부에게 드레스 입히기를 그리고 예림미용학원에서 머리손질을 맡아 주었으며, 박영숙 회원과 이영숙 회원 등은 축가와 반주를 맡아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봉사해 주었다.

이와 같이 주례부터 반주, 축가, 사회, 꽃 장식, 신부화장, 사진촬영 등을 자원봉사 하는 회원이건 또 알게 모르게 기금과 축의금과 선물을 내놓는 회원이건 간에 번민하는 이웃을 돕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뜻깊은 사업을 펴나가는 상담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서, 1980년 3월부터는 무료결혼식 신청이 계속 몰려와 거의 매주 결혼식이 진행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상담소가 처음으로 시도해 자리를 잡은 무료결혼식은 이후 각 구청이나 단체 등에서 이를 본받아 널리 확산되었으며, 2000년 6월 429번째의 무료결혼식을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여 고통 받았던 많은 부부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가정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편집부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0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2019 '봄'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아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엄마는 봄, 너무 행복한 하루

이 소감문은 2019년 3월 29일 용인에버랜드에서 있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에 참가한 비혼모 엄마들의 이야기이다.

이○○

아는 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준비해주신 강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명쾌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인지청구, 친권, 성본변경 등 적절한 예시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항상,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늘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데 오늘 강연과 상담을 통해 지금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끝까지 그 결과가 나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생명존중의 권리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누려야 하는 보호되어야 하는 선택적 부분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에 불편함이 많고 교통편과 경제적 이유로 아이와의 나들이를 늘 뒤로 미뤘는데 올해 초부터 '봄소풍' 으로 함께 기억되는 설렘을 담은 하루였습니다.

튤립의 색처럼 마음에 무지개가 폈어요.

조○○

안녕하세요! 지금 한쪽다리를 베고 누워 곤히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살짝 울컥하는 마음이에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렇게 엄마들을 위해 법률상담도 해주시고 또 이런 나들이까지 준비해주시니 감사해요.

요즘 한참 동물들을 좋아하는데 혼자서 이런 나들이는 엄두도 낼 수가 없거든요. 주변이나 어린이집 친구들은 주말마다 온갖 재미난 곳을 다녀온다는데 저는 그렇게 해주지 못해 조금 아니 많이 서글퍼지곤 했어요.

에버랜드 봄나들이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생각과 기대 이상으로 아이가 즐거워하고 흥에 겨워 길에서 춤을 추고 동물을 흉내 내는 걸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마음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나들이를 가려면 신경쓸게 너무 많을 텐데 저희의 간식과 식사, 동선, 마음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신 게 느껴졌어요. '아,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옆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나타나셨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모두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1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로 에버랜드를 오게 되었다. 전날부터 에버랜드를 간다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있었다. 에버랜드에 도착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교육을 다함께 받았는데 나 같은 상황에 꼭 필요한 법률 교육이었다.

이전에는 '아이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차라리 안 받고 생각할거 없이 지내는게 낫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률교육을 받으니 양육비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여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모든 상황이 막막하다고 느꼈기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더욱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가면 내 상황에 대해 꼭 필요한 도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에 문제가 생겨 힘들다 느낄 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떠올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법률 교육을 받은 것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나들이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2019 봄, 아이를 건강히 출산하고 육아에 지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다시 행복나들이를 올 때엔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아주 커졌다. 힘든 상황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박○○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의 사이도 나쁘지 않고 아이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이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노력해야겠다고 반성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긴장도가 많은 예민한 아이라 걱정도 고민도 많은 아이인데 3월이 시작하고 새 학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아이와 대화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 간다고 아이가 전날부터 설레어 했고 아침 일찍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서 에버랜드로 이동하는 내내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교우관계, 요즘 걱정거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보며 너무 미안했고 아이에 대해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사춘기인 요즘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을 쏟아냈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티켓부터 간식, 밥, 사파리 Q패스까지 꼼꼼히 챙겨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방법에 대한 법률교육과 상담도 너무 유익하였습니다.

김○○

좋은 법률 교육과 더불어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아이와 엄마들과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오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 기회에 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해요!

아이가 학교생활도 힘들어하고 공부도 힘겨워 했는데 오늘 나들이를 계기로 재충전의 시간과 놀이기구를 기다리고 움직이고 이동하며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이 힘들었는지와 게임을 하면서 얻은 보상(인형)으로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득 채우고 집에 갑니다.

이○○

3월의 마지막에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올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가정에 있음에 감사드려요.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계절에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일상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2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아이들과 교류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곳곳에서 배려해 주셔서 사랑과 응원을 잘 느낄 수 있어요. 늘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장○○

아이와 밖에 나와서 여유롭게 공원에서 놀이기구도 맘껏 타고 아이와 웃으며 장난감도 사고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한 달여 동안 아이가 놀러 가자고 졸라 댈 때마다 에버랜드 놀이공원을 말하며 몇 밤만 자면 갈 수 있다고 달래며 기다려 왔습니다. 나 자신도 너무 기다렸던 3월 29일 날씨도 너무 좋았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보채지도 않고, 들뜬 마음으로 손을 잡고 다녔더니 행복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해라면 엄두도 못냈을 놀이기구를 아이가 신난다며 연거푸 두 번을 탔고, 아이도 신났고 저도 신났습니다. 친구처럼 손을 잡고 즐거워한 아이를 보면서, 오늘같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 갖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작년 12월 출산 후 정신없이 육아에 신경쓰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내다 중학교 소풍이후 20년 만에 놀이공원에 다시 와 보았다.

처음에는 아기 탁아를 맡기고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아이 생각이 나고, 20년 만에 와보는 놀이공원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오지 못한게 미안하고 항상 아이생각이 나는 게,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 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로 지친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신나게 즐길 수 있어서 즐거웠고, 아이와 함께 온 엄마들은 정신이 없을 텐데 봉사자분들이 우리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마웠다.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아이부터 생각나는 게 나도 이제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세상에 아이들을 보니 모든 아이들이 이뻐보였고 세상이 좀 더 밝아보였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웃을 수 있는 나라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시설로 돌아가면 몇 년 후 아이와 함께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육아에 힘쓰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짧게 오행시로 표현해보겠습니다.

행: 행복한 나들이라고?
복: 복에 겨워 의문을 가졌지만
나: 나들이로 애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힘들어서 화가
들: 들들 끓다가도
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오늘 감사드립니다.

안○○

정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종이에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글쓰기도 전에 걱정됩니다.

서론은 줄이고 무작정 소감을 적자면, 놀이공원에 대해 울렁증이 있어서 데이트 때도 오지 못했던 곳을 숨 쉬고 싶어서 아이는 걱정되지만 좋은 선생님들께 맡길 수 있어 안심하고 맡기고 제 시간을 갖고 싶어 무작정 왔습니다.

전에는 에버랜드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됐는데 만 8개월 동안 독박육아를 하다보니 이젠 절실히 필요한 내 시간을 찾아 이렇게 본능적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주최하는 에버랜드 나들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피곤에 찌들어서 가겠거니 했는데 만 8개월의 어린 제 아들보다 더 큰 아이들을 보니 가는 곳마다 아이의 미래가 상상이 되어 곧 닥쳐질 미래에 대한 즐거움도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있었고 내 미래도 지금 이 들뜬 기분처럼 힘듦보다는 아이와 함께 하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놀이기구도 극복하여 즐겁게 많이 탔습니다. 아이와 올 때를 대비해 미리 키즈존도 둘러보고 답사에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길 것 같던 시간이 이리도 짧았던가? 허리케인의 낙하하는 그 순간의 짜릿하고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들이어서 피곤함보다는 가는 길이 산뜻하네요. 정말 이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여기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계속 계속 이야기가 술술 나올만한 나들이였습니다.

또 생뚱맞게도 이런 좋은 경험을 아이에게 일 년에 최소 두 번은 해주어야 하는데 '호기심 많은 우리 아들은 걷고 말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기념품과 장난감 사달라고 하겠다. 못해도 넉넉잡아 얼마 이상은 들겠다.' 라는 걱정으로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해주려면 경제적인 활동 능력을 키워서 아이에게 만족감 있는 생활을 시켜주어야 겠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나는 겁이 많아 무서운 건 못타는데 아이가 크면 같이 타야하나' 부터 아이에 대해 반 정도 생각이 들고 반은 아이생각도 잊은 채 온전한 내 시간과 내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으로 채워서 어느 시간 하나 그냥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정말 또 오고 싶어요. 아이와도.

이○○

봄, 오늘 호랑이를 봄.
봄, 오늘 사자도 봄.
봄, 오늘 불곰도 봄.
봄, 희야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엄마는 봄.
봄, 아가 너의 해맑은 웃음을 봄.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일 시 : 2019년 7월 20일(토) ~ 7월 22일(월)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장 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후 원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인·터·넷·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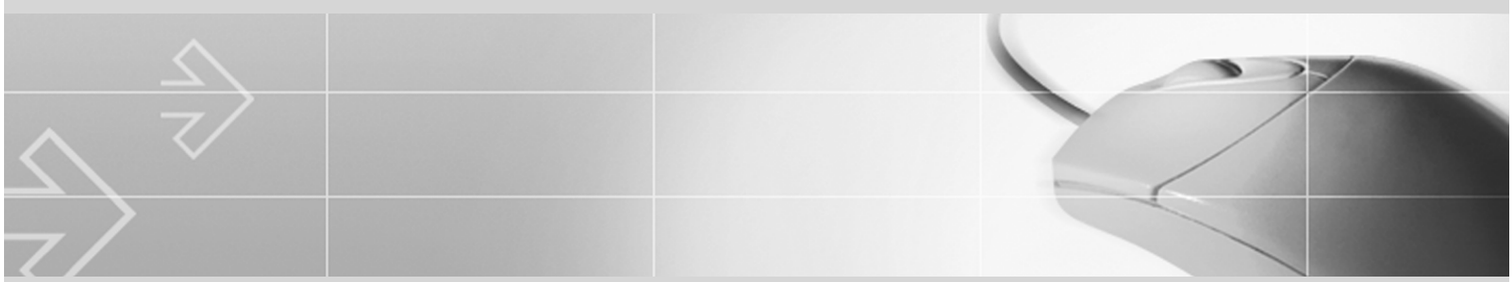
Q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불성실 때문에 이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의 전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인 2,000만원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는 재산이라며 제가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서울의 경우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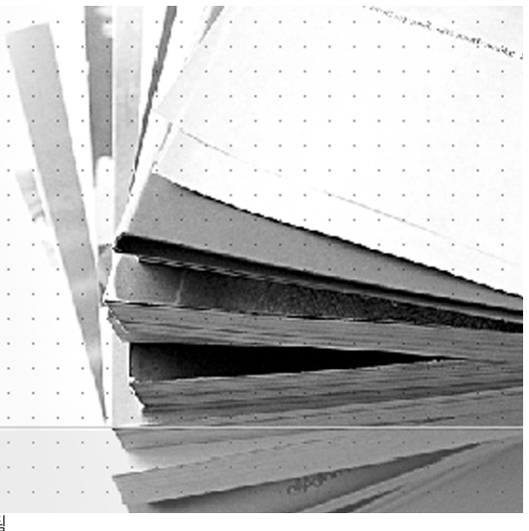
위 규정에 따를 경우 남편이 가지고 있는 4,000만원의 보증금의 대부분인 3,7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며 단지 그 명의만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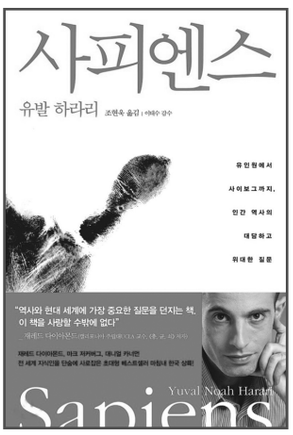
좋은 책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이태수 감수

김영사, 2015



넷플릭스의 드라마 '센스8'을 시즌 2까지 모두 본 후, 이 책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센스 8'을 기획하고 각본과 연출까지 한 워쇼스키 자매가 이 책을 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드라마의 어느 대목에선가 등장하는 '사피엔스'에 대한 비판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우리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종이다. 생태학적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멸망시킨 종이 얼마나 많은지 않다면 아직 살아있는 종을 보호할 동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었다.

드라마에서 인류의 새로운 종으로 등장한 '호모센소리움' 즉 '센세이트(Sense8)'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세계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탄압 당한다. 인종과 종교, 피부색, 성적 취향 등 이른바 주류와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들에 가해지는 혹은 주고받는 오늘날의 차별과 혐오를 보면 내 자신도 속해 있는 사피엔스의 종적 특성이 끔찍하게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살아 있었다. –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에 의하면 이들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순차적으로 등장한 것이었는데, 몇 십 년 동안 과학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 – 이후 호모 사피엔스 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저자에 의하면 이제 그들은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사피엔스』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전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저자는 "앞으로 몇 십 년 지나지 않아,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런 기술 발달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며, 부자들은 영원히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비극적인 전망과 더불어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행복에 대한 가능성 역시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인류가 멸종할 것인지, 더 나은 진보를 이룩할 것인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책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등을 거쳐 인류가 걸어온 길을 조망하고 있다. 책의 앞부분에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연대표'가 있는데 "135억 년 전 물질과 에너지 등장, 물리학 시작'으로 시작하는 이 연대표를 상상하는 것이 놀랍고 재미있어서 이 부분에 책갈피를 꽂아 놓고 책 읽는 틈틈이 이 대목을 다시 보곤 했던 기억이 새롭다. 2, 30대를 관통했던 거대담론이 지겹기도 해서 '소확행'에 관심을 집중해 보았으나 그래도 거시적인 무엇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었던 모양이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세계사 연구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 8만 명 이상이 그의 수업을 듣고 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영화이야기

미성년

감독 김윤석

출연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김윤석

영화의 제목이 화면에 뜰 때, 먼저 '성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야 맨 앞에 '미'자가 붙는다. 미성년, 성년이 아닌 자,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그러나 영화 〈미성년〉은 아주 직접적으로, 만 19세를 넘었는가, 아닌가 만이 성숙한 어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지 질문한다. 여기 등장하는 네 명의 어른(주리의 아빠와 엄마, 윤아의 엄마와 아빠(어릴 때부터 이미 떨어져 살고 있는 친부))과, 주리와 윤아라는 두 명의 고등학생이 보여주는 선택의 차이는 성숙함과 사려 깊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케 한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아무런 접점도 없던 2학년 학생 주리(김혜준)와 윤아(박세진)가 학교 옥상에서 만난다. 주리의 아빠 대원(김윤석)과 윤아의 엄마 미희(김소진)가 남몰래 연애를 했고 그 결과 미희의 배가 눈에 띄게 불렀기 때문이다. 주리는 어떻게든 엄마 영주(염정아) 몰래 이 일을 수습하고 싶지만, 때마침 영주가 주리에게 전화를 걸고, 윤아는 그 핸드폰을 빼앗아 대원의 불륜을 폭로해버린다.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듯 평온을 가장한 영주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며 주리는 전전긍긍하고, 윤아는 대원에게 푹 빠져 있는 엄마 미희가 답답하기만 하다.

'불륜'이라는 상황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사랑 받는(?) 콘텐츠다. TV의 각종 채널에선 일주일에도 수십 개의 드라마가 방영되는데, 그중에서 출생의 비밀과 불륜을 뺀다면 아예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 드라마가 태반이이며, 거기서도 대단히 익숙한 선악 대립이 펼쳐진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는 우유부단하고 딱하게 묘사하며, 대신 불륜의 상대자인 여성을 철저한 악녀로 그리는 것이다. 가정이 파탄난 책임은 어디까지나 '여자'에게만 있다는 시선.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접근 앞에 매번 똑같은 응원과 화풀이의 댓글이 달리고, (가짜)화해의 클라이맥스 앞에서 다 같이 꾸며진 위안을 얻는다. 이 같은 대중문화를 통한 감정 해소가 어느 정도는 '예행연습'이라든가 감정 해소의 루틴이 될 순 있겠지만, 현실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각기 다른 상황들에 대

처하는 성숙한 태도라곤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윤석 감독의 데뷔작 〈미성년〉은 불륜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접근을 택했다. 영화가 시작되면 이미 불륜은 저질러졌고 그 관계는 여자의 임신이라는 결과 때문에 점점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불륜의 주인공인 대원과 미희는 둘 다 이 관계 앞에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대원은 미희의 배가 만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뱃속의 아이와 미희의 미래에 대해 그 어떤 확실한 언질도 준 적 없다. 하지만 욕먹는 건 싫기 때문에 미희에게 다정한 태도는 유지한다. 무책임한 남자와의 만남 때문에 스무 살에 덜컥 임신하여 윤아를 낳은 뒤 혼자서 아등바등 삶을 꾸려온 미희는, 대원이야말로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상황이 저절로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며 비루한 현실을 외면하는 모호한 상황.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게 된 영주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영주는 남편의 기만("넌 두 사람,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에 격분하지만, 이미 믿음을 잃게 된 남편 옆을 훌쩍 떠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지금 구입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전부 당신 덕분이야"라는 남편의 입에 발린 칭찬 앞에선 웃었지만, 정작 온갖 적금과 대출 통장들을 펼쳐 놓아보니 명의가 죄다 남편 이름이다. 집안일을 꾸려나가고 재산을 악착같이 불려나가며 세 식구의 미래를 위해 힘썼던 전업주부로서의 삶이, 결국엔 '남편'의 재산을 불려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영주는 망연하게 주저앉아 "미친년…"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혼외자식이 태어나는 상황 앞에서 당사자인 어른들이 우왕좌왕하고 책임회피와 자기모멸과 자기연민에만 빠져 있을 때, 주리와 윤아가 나선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가 이혼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며 아직 법적 미성년자인 자신들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고, 어른들에게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두 소녀는 서서히 미성년의 세계와 결별한다. 윤아와 주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것뿐 아니라, 비겁한 어른들이 만들어놨던 기존 세계와 결별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어른들은 퇴행하고, 아이들은 성장한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참여 후기를 싣는다.

김 장 원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법학을 접하게 된 것은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학과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직접적인 해결자로 나서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 전공인 신문방송학과 더불어 법학을 복수 전공으로 신청하면서 법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법은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부분도 보호하는 세밀함도 있었고, 아직도 성문화 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재미를 느꼈고, 실제로 법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상담소에 현장실습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소는 무료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해주는 기관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작 후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통계로만 접해왔던 이혼율이나 가정폭력 실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니, 놀랍기도 하고 가슴아프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문제로 상담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울면서 사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턴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선생님께 연결해드리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상담전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법에 무지해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법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이 법에게마저 외면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직 청소 노동자 등 많은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직업이 이류고, 그 장소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보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소에서 느낀 대로 많은 약자를 법의 품으로 끌어당기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상담소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조 은 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지난 2학기 학교의 현장실습 인턴십 광고란에서 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활동과는 달리 업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수활동을 오기 직전 학기에 가족법 강의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상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친권 양육 문제 등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며,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상담안내에 익숙하지 않아 수화기를 드는 일이 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빠르게 전화를 받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법 관련 서류를 살펴보기도 하고 파산 · 면책 패스트 트랙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본 것은 상담소가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29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가족법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북한의 가족법 강의를 들어보고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참관할 수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다양한 상담을 참관하고 법과 절차를 스스로 찾아보고 강의를 들었던 경험은 후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제 꿈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일을 경험해볼 수 있게 많은 걸 가르쳐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법 분야에 대한 공부와 경험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근무' 라는 것을 해보면서 저의 태도를 점검하고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실수도 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차분히 지도해주신 덕분에 후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현장실습이 상담소였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는 내내 상담소에서 배운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자원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상담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법조인이 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 은 후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전에 현장실습 경험도 별로 없었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봉사활동 경험이 많지 않아서 행여나 일이 어렵고 제가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첫날부터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면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나 다른 실습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적응하기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실습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상담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었고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와서 어떻게 상담소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지 직접 접하게 되니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고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한 달 동안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 안내, 교육프로그램, 법률구조, 도서실 업무, 접수실 업무, 법원상담 등 이 많은 일들에 골고루 실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업무적인 경험뿐 만아니라 여기서 봉사하면서 느낀 바도 큽니다.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어 하게 된 상담소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안내를 하면서도 전화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우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느낀 바를 가지고 상담소에서 일했고, 앞으로 상담소 밖에서도 이런 생각과 느낀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해서 제가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상담소가 하는 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회의 시간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가고 앞으로 그 배운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학기 중에 봉사활동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연수를 통해서 제 자신도 조금이나마 성장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0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김 수 진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활동을 통해, 법률구조기관인 상담소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업무실습을 통해 법률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많은 판결문을 읽고 다양한 법률구조 업무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면서 가족법과 법률구조가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상속, 입양, 친권, 후견 등의 가족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북한의 가족법 특강도 들을 수 있어서 실습기간 동안 이색적인 법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인 우리와는 다르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 법률보다 최상위에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연수활동은 상담참관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학습하여 평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왔던 저와는 다르게, 상담위원 선생님께서는 각 사례에 알맞은 법률을 적용하여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실무적인 법률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현장실습에서의 경험은 앞으로의 법학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장실습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단순히 법률을 외우는 것에 그쳤던 기존의 공부법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고려하는 생생한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 · 지상 · 순회 · 인터넷 · 출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1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본소,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가정위탁유공자 장관표창 수상

본 상담소는 지난 5월 17일 중앙가정위탁센터가 개최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공로로 가정위탁유공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본소는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뿐만 아니라 입양, 성 변경 등 가정위탁 아동의 복리를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사진 2면)

지부관련 자문회의 열어

5월 22일 지부관련 자문회의가 있었다. 차명희 이사장, 곽배희 소장, 김명순 이사, 조대연 이사, 박영립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 천정환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여 상담소의 지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신용회복 상담 및 교육실시

본소에서는 5월 13일 2019년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노숙인의 신용회복 및 가족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 서비스 안내 및 가족법 개정운동을 하였다. 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청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 상속 등의 법

률 상담과 함께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상담소에서 무료로 파산 및 면책 등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9명, 그리고 450여명의 노숙인들이 참여하여 상담을 받고 가족법개정서명을 하였다.

본소,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체결

지난 5월 30일 본소는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원장 이문재)와 업무협력 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 협약을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2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통해 본소와 센터는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호 긴말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력분야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 노숙인 신용회복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등이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의 전규선 상담위원과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최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본소는 이번 협약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등에게 법률구조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구조 관련 본소 변호사 및 법무관 정기회의

5월 20일 본소 변호사 및 법무관 정기회의가 있었다.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한 본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김민선 ·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5월 23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 주제는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이였다. 김병후 원장은 부모와 자녀의 원만한 관계는 원만한 부부관계에서 나온다며 자녀와의 대화는 '발전을 위한 충고'가 아닌 '마음으로 교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사가 실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예로 들어 설명해주어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6월 넷째 목요일인 27일에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5.1. 온누리호스피스학교 가족법교육
– 김진영 상담위원

5.2. 고양축산농협주부대학 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5.13. 서울시 노숙인 대상 법교육 및 상담
: 서울시일자리박람회
– 조은경 상담위원

5.15. 서울지방경찰청 신임 학대예방경찰관 교육
– 박소현 상담위원

5.1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5.17.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자 직무교육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복미영 상담위원

5.29. 학교폭력예방교육–숭의여자중학교
– 권지연 상담위원

5.30. 노숙인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
: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 전규선 상담위원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3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28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9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고, 17일에는 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이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7일 현대HCN방송의 '박해열의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에 출연하여 가정폭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9일에는 EBS 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 Law Cafe 초대손님과 함께' 코너에 출연하여 상담소 소개 및 사업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 1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신임 학대예방경찰관 교육과정에서 '가정폭력 처리사례 및 기관 소개–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과 법률구조–'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과 한국가족법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김용담 전 대법관과 오찬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5월 17일 상담소를 방문한 김용담 전 대법관(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과 오찬을 함께하며 상담소 지부 문제 및 현안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학술포럼에서 격려사를 했으며, 3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개교 133주년 기념식 및 총장 초청 오찬에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제29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2019년 5월 본부 상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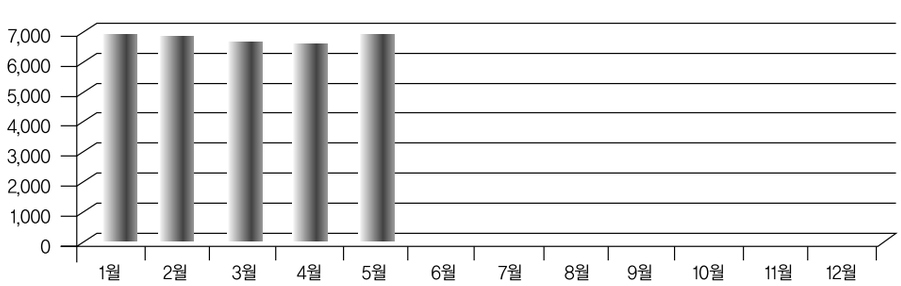
총상담 6,654				
법률상담 (6,091)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200	4,635	191	64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46	76	41		

2019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65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6,091건(91.5%), 화해조정 446건(6.7%), 소장 등 서류작성 76건(1.2%), 소송구조 41건(0.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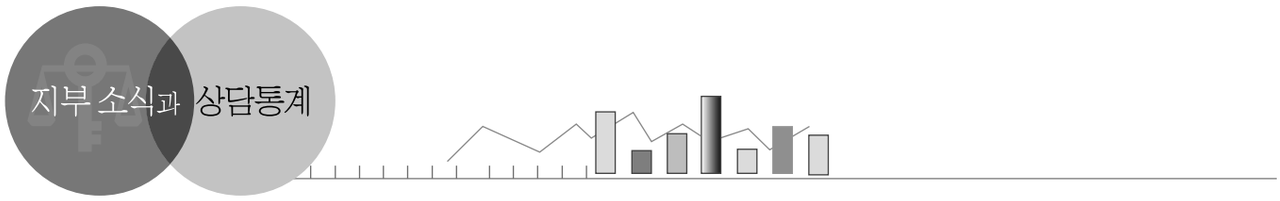
법률상담 6,09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0%→4.4%), 이혼(18.5%→20.1%), 사실혼해소(1.3%→1.6%), 위자료 · 재산분할(10.6%→11.9%), 친생자존부(2.9%→3.1%), 유언 · 상속(7.0%→7.1%), 가족관계등록부(3.7%→4.4%), 성변경(1.0%→1.3%), 미성년후견(0.4%→0.7%), 가사기타(5.0%→6.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 · 채무(0.4%→0.6%), 파산(2.5%→2.9%),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6,09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00건(19.7%), 전화상담 4,635건(76.1%), 인터넷상담 191건(3.1%), 순회 64건(1.1%), 지상 1건(0.0%)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4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강릉지부

5월 2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형사조정을,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심재범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5월 7일, 14일, 21일,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정이수, 김효경, 장경아, 황은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5월 8일, 15일, 22일, 2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형사조정을, 2일, 16일, 30일, 3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30건의 출장상담과 6건의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회, 18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지수 UP UP! 사업으로 12일 부모교육을, 25일~26일 가족캠프를 실시하였다. 다:이룸사업으로 실천! 생활법률 무료공개강좌 5건을 실시하였다. 윤용원, 이태현, 박진수, 장준범, 이석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시법원 2회(총 55명)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 내소 상담 1회를 실시하였다. 임재훈, 배근영,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조 봉사를, 허정택, 황미옥, 강은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5월 11일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주니어 로스쿨 프로그램 개강하여 폭력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5월 2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송구조 서비스지원 MOU 체결을 하였다. 황미옥, 김정혜, 구민혜, 김춘희, 최강호, 강은혜, 문나연, 박진우, 허정택, 이윤선, 양승철, 손난주, 전태우, 송지영, 박지현, 임용호, 오도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협의이혼 상담을 매일 실시하였다.

익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5월 4일 중앙체육공원,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상담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5월 7일, 21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15일 전북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워크샵에서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6회를 실시하였다. 강영신, 장충석, 조근원, 최대일, 진휘원, 한지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매주 수요일(오후 7:00~10:00, 주 1회 총 10회기)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장상현, 홍지혜, 박은정, 백존익, 황은하, 고승현, 이수희, 박수열, 박정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5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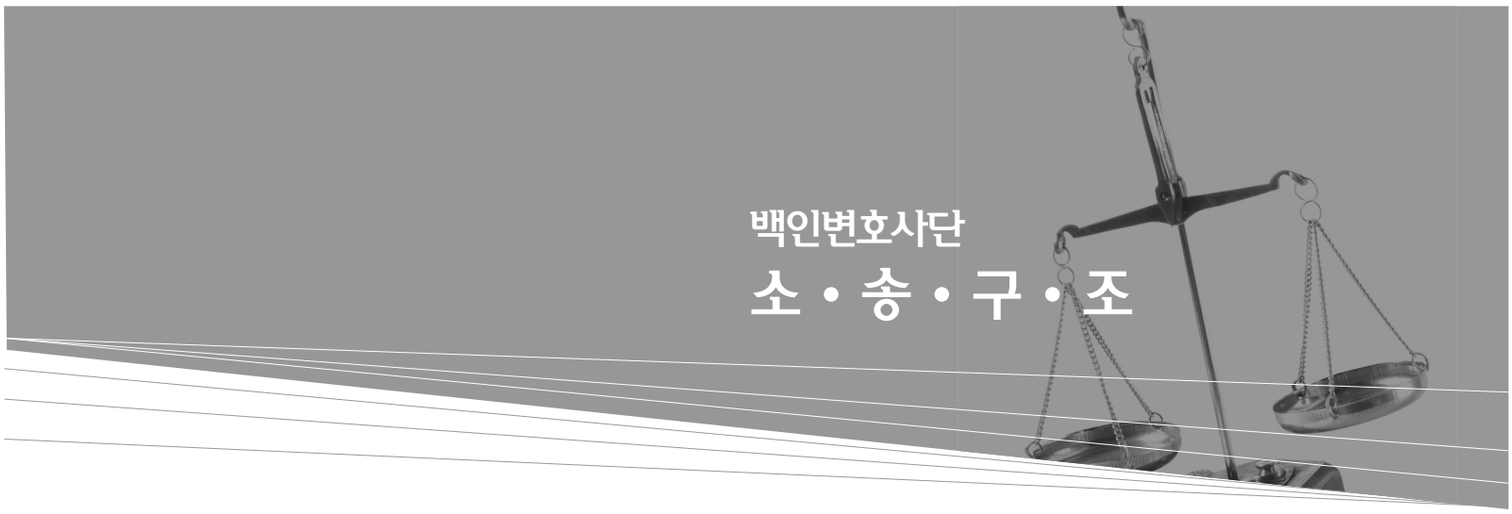
청주지부

4월 2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5월 14일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실시하였다.

2019년 4월 지부 상담통계

구분 / 지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59	153	5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170	70	100		
군산 (063) 442-1560	158	131	25		2
대구 (053) 745-4501	1,105	940	165		
대전 (042) 520-5258	225	225			
동해 (033) 535-0188	126	126			
목포 (061) 273-2514	159	159			
부천 (032) 667-2314	247	211	36		
성남 (031) 707-6661	403	326	71	3	3
송도 (032) 834-1369	173	76	89	1	7
수원 (031) 243-4600	379	321	53	2	3
순천 (061) 753-9910	178	168	6		4
안동 (054) 856-4200	79	78			1
울산 (052) 246-9568	146	133	3	1	9
익산 (063) 851-5113	423	421			2
인천 (032) 865-1120	384	187	182		15
전주 (063) 244-2930	229	221		1	7
정읍 (063) 535-3705	148	148			
제천 (043) 644-5690	118	116			2
중구 (02) 2238-6554	370	369			1
진주 (055) 746-7975	183	124	53		6
창원·마산 (055) 261-0280	309	275	22		12
청주 (043) 257-0088	225	145	72	8	
춘천 (033) 257-4688	61	60		1	
태백 (033) 554-4004	89	89			
평택·안성 (031) 611-4251	190	168	20	2	
포항 (054) 283-7555	57	57			
지부총상담	6,493	5,497	902	20	74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6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77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1990년경 혼인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지만 전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전배우자는 급식사업을 하면서 영업장을 늘리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무리하게 영업확장을 한 탓인지 전배우자는 제대로 사업을 관리 하지 못하였고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신청인과 전배우자는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났다. 신청인이 소유하던 주택까지 경매로 처분되었으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고, 신청인은 식당일을 하며 생계와 채무를 책임져야만 했다. 전배우자와는 경제 갈등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이혼하였다. 신청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고 결국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지인의 작업실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지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30.)
채무자를 면책한다.

남편을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82
담당 : 설해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84세)와 피고(여, 72세)는 1971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본래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갑작스럽게 혼자 일본으로 떠난다며 출국하였고, 원고의 일본 방문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에 필요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일본에서 빚을 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재산을 모두 잃고 결국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현재 원고는 고령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가 절실한 상황이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7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지속적인 폭력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8-221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47세)는 2012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8세), 사건본인2(남, 6세)를 두었다. 결혼 초기부터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과거에 집착하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피고의 폭력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사건본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를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2016년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현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피고를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 4.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7. 1.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당 월 5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도와 심각한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247
담당 : 김용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8세)와 피고(남, 64세)는 198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평소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트집 잡으며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방 종업원과 외도를 한 일도 있다. 2018년 3월경에는 피고가 원고를 밤새 폭행하였고, 원고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물고문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늑골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9. 2.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8-442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1세)은 2011년 12월경 상대방(남, 40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6세)을 두었으나, 2016년 11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상대방은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이후 친권자 변경 심판에 따라 2018년부터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혼 직후 약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사건본인을 만나지도 않았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사건본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9. 3. 18.)

가정상담1906-24p 2019.6.10 2:6 PM 페이지38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3.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급여 채권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9-53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5년 4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2세)을 두고 살다가, 2008년 12월경 협의이혼하였다.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2009년경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게 2009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채무자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13년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추심액은 없었다. 이에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단 2회만 양육비를 지급받고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6년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감치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9세)은 1990년경 '보고 듣는 카세트'를 개발하여 해당 특허기술을 대기업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였고,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를 다수 고용하는 등 1년여 간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다 2002년경 일명 '신용카드대란'으로 인해 쇼핑몰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하였다.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변제하였으나 잔여 채무는 끝내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후 신청인은 오랜 세월 신용불량자로 있으면서 취업을 할 수 없었고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29.)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9년 6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6월 10일, 6월 24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6월 27일(목)	6.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만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상담표지6월 2019.6.10 1:25 PM 페이지1 CTP-1
Cyan Magenta Yellow Black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1)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소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사례발표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주제 발표

1) 부부폭력피해여성의 대응방식 변화 양상과 경험적 지식
– **장희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발표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이민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질의 응답 및 정리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